

情報傳達手段의 發展과

韓國에서의 學術活動의 沮害要因



鄭 駢 謨

〈中央大學校 文科大學 圖書館學科長〉

I

人類는 最初에 言語를 驅使하여 相互間의 意思를 傳達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 段階는 紀元前 約 1500年을 전후하여 事物에 관한 간단한 그림(略畵)를 그려서 人間 相互間의 意思를 傳達하는 手段으로 使用할 수 있었다. 이러한 略畵가 점차 發展하여 古代 Egypt 나 古代 中國의 象形文字를 形成했으며, 이것이 다시 表意文字와 表音文字로 發展하여 現代의 文字를 形成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文字들을 記錄하는 資料로서는 돌(石) 木板 樹皮 粘土板 棕櫚葉 獸皮 papyrus 象牙 陶器 綿布 絹布 金屬板등을 使用해서 그위에 文字를 조각하거나 染料로 記錄했던 것이다. 이러한 歷史的 過程에서 A.D. 105年 中國의 蔡倫이 종이(紙)를 發明하여 그것이 점차 널리 世界的으로 普及되자 이것이 거의 唯一한 文字를 傳寫하는 資料로 使用해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文字의 發明과 發展, 그 傳寫資料의 發展으로 因하여 人類는 相互間의 意思를 時間과 空間을 넘어서 傳達할 수 있었던 것이다. 文字로서는 思想이나 感情 經驗 行動도 記錄할 수 있는 同時에 한번 記錄한 것은 時間的으로 永久히 保存할 수가 있고, 간편하게 運搬해서 遠距離까지도 運送할 수 있고, 複寫해서 많은 場所에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人類는 口授時代를 거쳐서 傳寫時代에 이르렀고, 이 傳寫時代는 다시 印刷術의 發明(1450年 獨逸의 Gutenberg)을 가져 오게 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1234년에 世界 最初로 이미 金屬活字를 發明하여 「古今詳定禮文」 50卷을 刊行한바 있으나 이것이 外國에 까지 影響을 주지 못하고 우리나라 안에서 閉鎖的인 事實로만 그쳐 버렸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印刷에 의한 複寫의 資料는 주로 종이(紙)였다.

이 印刷術과 종이의 普及와 發展으로 인해서 古代로부터 口授와 筆寫로서 전해 내려오던 古典의 文獻들은 물론 새로운 文化의 創造的 文獻이 生産되고 그것이 널리 普及와 傳達될 수 있게 됨으로써 人類는 이것들을 人間의 思想 感情 情緒 經驗 行動등 人間의 모든 知的

인 活動을 傳達하는 唯一한 媒介物로 삼아온 것이다. 이것이 곧 오늘날의 圖書 및 기타 文獻類들이다.

II

한편 古來로부터 이와 같이 많은 種類의 圖書와 文獻類들이 生産되어 流布되자 知的인 活動에 從事하는 사람들은 個人的으로나 公的으로나 이를 蒐集하고 一定한 秩序下에 整理하고 保存하여 個人文庫 또는 公共의 圖書館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圖書館의 最古의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이 中國 周나라때 (B.C 1100年代)의 「藏書府」이며 Egypt의 Alexandria 圖書館(B.C 300年餘), Assyria의 Assurbanipal 圖書館(B.C 600餘年경)이다. 그후 世界各地에서는 圖書館이 無限히 增加해 왔으며 이들 圖書館은 一定한 秩序下에 整理하여 所藏圖書의 個個의 文獻들을 冊子로 識別할 수 있도록 主題別로 區分하고 各主題下에 著者나 書名등의 各各의 書誌的인 特徵을 記錄하여 所謂目錄을 作成하게 되었다.

最初의 이러한 圖書館은 利用을 위한것이 아니라 주로 保存을 위한것이였으며 여기에 所藏된 圖書目錄들은 利用者들의 利用의 便宜를 위해서 作成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圖書館이 점차로 學術과 教育을 위한 利用에 奉仕하는 社會的 機關으로 轉換됨으로써 圖書館側에서는 所藏圖書를 利用者에게 案内하기 위해서 圖書目錄이 가장 적절한 媒介物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所藏圖書目錄은 初期에는 冊子形式의 것으로 圖書의 收入順에 의해서 記入되거나 또는 整理順에 의해서 記入됨으로써 利用者들의 通覽과 要求하는 資料의 檢索이 困難하게 되어 藏書目錄은 Card形式의 目錄으로 轉換되었다. Card目錄은 어떠한 圖書이거나 한 項目을 單位로하여 한 Card에 記入하게 되므로 圖書館의 書架排列上의 順序와는 關係없이 Card에 記入된 標目を 排列單位로 하여 隨時로 一定한 順序에 따라 排列될 수 있으므로 利用者들의 通覽이 便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排別된 Card目錄은 다시 必要에 따라 印刷된 冊子目錄으로하여 流布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冊子目錄은 圖書館뿐만 아니라 出版機關의 PR 을 위해서도 發行되고 또한 어느 特定 主題分野의 專門圖書의 集大成을 위해서 또는 專門의인 研究를 위한 體系의인 文獻案内를 위해서 무한히 많은 主題別 文獻目錄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種類의 目錄을 一般의으로 書誌라고 한다.

이상에서 말한 것은 單行本이건 叢書이건 全集이건 圖書의 경우이다. 그러나 특히 現代에 이르러서는 社會의 變遷과 學問의 進歩가 빠르게 되자 모든 分野의 文獻의 生産量과 種類는 幾何級數의으로 增加되고, 出版形式은 圖書보다도 論文集 學術雜誌 定期刊行物등이 더욱 큰 比重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學者나 研究者들의 最新의 研究結果는 주로 이러한 論文集 學術雜誌 定期刊行物에 發表되고있으며, 또한 그들은 주로 이러한 媒介物을 통해서 보다 새로운 information 을 얻고, 대체로 그것을 根據로해서 또다시 새로운 研究를 試圖하고 推進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研究者들이 이러한 무한히 많은 그리고 繼續的으로 生産되는 出版物에 收錄된 記事 가운데 各自 自己에게 必要한 文獻을 일일이 索出하여 調査한다는 것은 全然 不可能한 것이며, 또한 자기의 研究主題分野의 것이라 할지라도 世界各國에서 生産되는 모든 것을 전부 調査한다는 것도 全然 不可能한 것이다. 그러나 學術의 獨創性의 競爭은 從來부터 世界를 相對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關係分野의 보다 많은 獨創的 研究結果를 最大限으로 調査 檢討하도록 不可避 強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第二次的으로 研究者들이 모든 論文集 學術雜誌 定期刊行物 등에 收錄된 information 가운데 자기가 必要로하는 資料를 보다 迅速히 찾을 수 있도록 마련되고 있는 것이 文獻索引과 抄錄誌이다.

索引은 特定한 資料에 包含되어 있는 各種의 情報의 所在를 容易하게 探知할수 있도록 이것들을 項目으로 標出하여 그 所在를 指示하고 一定한 順序로 配列하고 있는 一種의 二次資料이다. 索引은 크게 두 種類로 區分할수 있다. 첫째는 特定한 情報資料의 記述內容에 基礎를 두어 索引項目을 標出한 索引이며, 둘째는 記事(文獻) 單位로 分析하여 索引項目을 標出한 索引이다. 前者에 속하는 것으로는 單行本의 卷末索引, 別卷索引 以外에 좀 特殊한 것으로는 要語索引이 있다. 後者に 속하는 것으로는 叢書·集成索引 雜誌記事索引 新聞記事索引등이다.

이 가운데 研究者들의 資料索出을 위한 가장 중요한 媒介物은 雜誌記事索引이며 오늘날 이러한 索引은 綜合的인 것, 主題別로 編集된 것, 또는 한主題안에서도 時代別·年代別로 編集된 것 또한 特定한 論文集이나

學術雜誌에 收錄된 記事만을 索引하여 卷末에 附錄하거나 別卷으로 發行한 것등 世界的으로 무한히 많은 索引誌가 發行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學者들이 자기 分野의 이러한 第二次的인 媒介資料를 把握하고 調査하는 時間과 努力의 程度는 아마도 第二次世界大戰 이전의 特定한 分野의 源資料(original material)를 調査하던 時間과 努力에 對比될 것이다.

다음으로 抄錄誌는 雜誌記事索引과 같이 源資料의 索出을 위한 檢索機能을 가지는 同時에 原著論文을 要約抄記한 逐次刊行物이다. 이 抄錄誌는 특히 自然科學이나 技術科學分野에서는 가장 일찍이 發展하여 널리 通用되고 있으며, 社會科學分野에서도 점차 發展하고 있다. 利用者는 그 抄錄을 읽음으로써 原著論文의 內容의 概要를 把握할 수 있으며, 여기에 記錄된 書誌的 事項에 의해서 原著論文을 參照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科學分野의 抄錄誌 가운데 *Chemical Abstracts*¹⁾나 *Biological Abstracts*²⁾는 世界的으로 有名한 것이다.

現代와 같이 各分野에서 무한히 많은 論文이 發表되고 더욱이 그 增加率이 많을 때에는 範圍가 좁은 特定한 專門領域에 한정한다 할지라도 各者가 자기에게 關聯된 文獻全體를 살펴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우선 抄錄을 통해서 研究의 動向이나 展望을 把握하고 자기에게 꼭 必要한 原資料만을 索出하여 調査함으로써 文獻利用과 研究의 效率을 向上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선 한分野단의 例를 본다면 數年前에 全世界에서 刊行되는 科學技術雜誌는 約5萬5千種이며 1年間에 掲載되는 論文數는 約100만件으로 推定되며 專門分野別로 보면 아래와 같다.

專門雜誌數와 揭鐵記事數³⁾

部 門	雜誌數 (推定年)	年間揭鐵記事數 (推定年)	
醫 學	9,000 (1962)	220,000	1961
化 學	8,000 (1961)	150,000	1961
生 物 學	5,000 (1900)	150,000	1961
物 理 學	1,000 (1962)	40,000	1961
機 械 工 學	700 (1957)	10,000	1962
心 理 學	600 (1957)	15,000	1962
核 科 學	2,000 (1962)	35,000	1962
農 學	8,000 (1962)	150,000	1957
電 子 電 氣 工 學	1,000 (1962)	30,000—70,000	1962
宇 宙 科 學	1,500 (1961)	45,000	1961
數 學	1,000 (1957)	15,000	1962
氣 象 學	1,000 (1962)	20,000	1962
金 屬 學	600~900 (1962)	30,000~35,000	1962
土 木 工 學	500 (1962)	15,000	1962
生 産 工 學	500 (1962)	15,000	1962

論文의 年間 發表數는 化學에서는 最近前年度에 比해서 8.7% 上昇하고 있으므로 8年後에는 2倍, 16年後에는 4倍, 20年後에는 6倍가 될 것이다.

그러면 每年의 增加率은 考慮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1961年度의 一年間의 化學의 論文數가 15萬件이니 化學을 專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떻게 이러한 論文件數를 全部 調査할 것이며, 直接 自己에게 關係되는 것은 그가운데 $\frac{1}{100}$ 이라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1,500件인데 이것을 어떻게 一年동안에 調査할 것이며, 그 많은 論文가운데 어떠한 論文이 자기에 直接 關係가 있느냐 與否를 어떻게 選別할 것인가? 이것은 文獻索引이나 抄錄의 도움이 없이는 全然 不可能한 것이며, 그것도 研究者가 非計劃的으로 調査해서는 充分한 調査가 되지 않을 것은 當然한 일이다. 이러한 事實을 어느 정도 認識한다면 위에서 말한 書誌와 索引 抄錄이 研究者들에게 얼마나 重要한 것인가를 切實히 깨달을 것이다.

III

學術的인 文獻活動의 發展은 이상에서 말한 書誌와 索引 抄錄에서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情報傳達手段은 여러가지 다른 특수한 方法으로 發展하고 있다. 예를 들면 電話機 錄音機 檢索機 寫眞電送裝置 teletype T.V 등은 이미 널리 大衆化되고 있는 事實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通信과 情報傳達手段의 發展이 學術的인 文獻活動과는 하등의 關係가 없는 것 같으나 이들은 모두 相互間의 活用여하에 따라서 情報의 傳達와 蓄積 및 再活用이 얼마든지 可能하므로 이것은 이미 특수한 分野에서는 活用되고 있는지가 오레다.

뿐만 아니라 現代文明의 획기적인 發展은 Computer의 發明이다. 이것은 宇宙科學의 副產物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바 그 性能은 無限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T.V를 통해서 아폴로 11호 宇宙船內에 있는 「닐·암스트롱」船長이나 달에 着陸하여 活動하는 「앨드린」大領, 「코린스」등을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달에서 活動하는 事實까지 우리가 明確히 볼 수 있게 한 것은 美國의 NASA에 設置된 Computer의 機能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앞으로 우리 人類은 地球上의 어느 곳에 있는 것이건, 아니 宇宙空間가운데 어느 곳에 있는 것이건 Computer에 技術的으로 接續만 시킨다면 어디에서나 즉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 그리하여 現在 이 Computer의 機能을 活用하여 information science라는 새로운 科學技術이 發展하고 그것이 이미 活用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2年前, Pittsburgh大學의 圖書館學教授 C. Walter Stone은 다음과 같이 豫言한 바 있다.

‘1975年以後에는 印刷로 된 世界의 文獻뿐만 아니라 다른 media로 記錄된 社會의 全記錄을 收集하고 生産하고 蓄積하고 充分히 活用하게 하기 위한 더욱 廣大한 責任이 맡겨지게 될 몇가지 새로운 類型의 Communication service 機關이 設立될 것이다. 그리고 역시 研究施設과 圖書館大學(library College)式的 課程의 創設을 통해서 教育의 집(家)으로서의 圖書館의 發展이 점진적으로 더욱 強調될 것으로 생각된다.

未來의 圖書館은 결코 한 場所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혀 이 모든 것이 類似한 同時에 다른 機能을 遂行하지만 電子機械的으로 같이 結合될 여러가지 類型과 大小의 單位로 構成된 廣範한 組織으로 생각된다. 이 組織內에는 電送寫眞과 送信 受信을 할 수 있는 高性能 音聲送信裝置가 있게 될 것이며, typewriter와 같은 keyboard와 Computer에 대한 接續裝置와 earphone이 있을 것이며, 電子裝置로 된 T.V 反映單位裝置가 있게 될 것이다.’⁴⁾

그러면 이상에서 말한 書誌나 索引이나 抄錄은 이제 電子式으로 轉換될 것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의 學術活動의 樣相도 全然 從來와는 달라질 것이다. Computer는 이미 우리나라에도 導入되어 여러 方面에 實際로 活用되고 있는 事實은 누구나가 다 잘 아는 바이므로 information의 收集 蓄積 傳達 分配 活用 및 創造등을 包含하는 모든 學術活動에 있어서 高性能의 電子情報時代는 이미 우리의 눈앞에 다가 서고 있는 것이다.

IV

우리는 이상에서 情報傳達手段의 發展過程과 現代의 先進外國에서의 文獻活動과 學術活動의 趨勢를 대략 살펴 보았다. 다음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文獻活動과 學術活動 狀況을 대략 살펴보고 그에 대하여 檢討해 보기로 한다.

現在 우리나라의 情報傳達手段으로서의 文獻活動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발이 묶여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물론 書誌로서는 國立國會圖書館과 國立中央圖書館의 藏書目錄을 비롯해서 各主要大學의 圖書館藏書目錄과 大韓出版文化協會의 「韓國出版年鑑」등이 나오고 있으며, 索引誌로는 韓國圖書館協會編인 「學術雜誌索引」을 비롯해서 國會圖書館編인 「國內刊行物記事索引」, 「英文雜誌索引」, 「韓末韓國雜誌目次總錄」등의 特殊索引과, 「國學研究論著總覽」(乙酉文化社, 1960), 「韓國教育目錄」 I, II(中央大學校 1945~1964), 「韓國行政索引」(安海均編 서울大學校, 1961), 「産業經濟文獻目錄」(延世大學校, 1961), 「韓國圖書館關係文獻目錄, 韓國雜誌目錄」(梨花女大, 1965), 「韓國史研究論文總目錄」(國會圖書館, 1967)등의 主題別 索引誌가 있으며

特定出版物의 附錄으로 나온 것이 近十種이고 기타 10餘種의 定期刊行物의 自體索引이 있다.⁵⁾ 그러나 어느 것을 막는하고 持續性이 적고 間歇的이며 累加的인 것이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實用性이 적다.

그리고 抄錄誌는 Korstic이 唯一한 것이나 너무나 局部的이다.

그러하여 韓國圖書館協會는 韓國의 書誌事業이 重要하고 時急함을 認識하고 이에 대한 事業을 計劃하고 있으나 資金事情으로 인하여 不振狀態에 있다.⁶⁾

한편 外國의 書誌 索引誌 抄錄誌는 특히 各大學圖書館에서 그 必要性을 切感하고 繼續的인 入手에 努力하고 있으나 同一連續資料가운데 缺本이 많으며 그것이 定期刊行物인 경우는 항상 時間遲延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實情下에서 學者나 研究者들의 面에서 본다면 그들은 그들의 學術活動에 가장 重大한 많은 障礙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 가장 큰 障礙는 海外的 學術文獻資料의 求得難이다. 그것은 각圖書館에 海外的 書誌의 資料가 繼續적으로 迅速히 具備되지 못함으로써 先進外國에서 出版되는 學術的 資料를 迅速히 알 수 없다고 하는데도 原因이 있을 것이나 비록 必要한 資料에 대한 情報을 안았다 할지라도 弗貨의 個人的인 使用不能과 또한 書籍商들을 통하여 入手한다 할지라도 그 節次에 막대한 經費와 시간을 소비하고도 반드시 求得할 수 있다는 保障도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尖端的인 學術活動의 結果가 發表되는 先進外國의 學術雜誌 論文集 pamphlet 등을 韓國의 學者들이 繼續적으로 適時에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그러므로 韓國의 大部分의 學者나 研究者들은 이미 保有하고 있는 낡은 資料나 自己眼目으로 求得할 수 있는 局部的인 資料를 根據로 하여 그들의 學術活動을 維持해 가고 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學術의 發展을 위해서 이러한 問題를 어떻게 解決해야 할 것인가? 이 問題는 다만 政府의 이에 대한 政策과 그에 따른 行政力으로써만이 解決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政府는 產業의 發展만이 國家의 繁榮이며 文化的 發展이라고 確信하고 이러한 問題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면 이러한 問題를 產業界와 關聯시켜서 생각해 보자. 美國의 產業界에서는 研究者(補助者는 除外하고) 一人當年間 約 600弗을 情報關係의 費用으로 使用하고 있으며, 日本만 해도 約 5萬圓(日貨) 내지 10萬圓의 情報關係의 費用으로 使用하고 있다고 한다.⁷⁾ 그러나 우리나라의 產業界의 研究者에게 그러한 調査費가 支給되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느 專門的 學術研究機關이나 產業機關에 附設된 研究所

(室)에 研究調査를 위한 施設도 不備한데다가 時時刻刻으로 發展하여 發表되는 先進外國의 學術的인 文獻을 迅速히 入手하여 研究者들로 하여금 効果적으로 調査하게 하고, 여기에서 얻는 結果를 바탕으로 새로운 研究를 推進할 수 있는 態勢를 갖추지 못하고서는 科學技術의 後進性을 克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第2次나 第3次的 經濟開發計劃도 表面的인 達成 以外에는 不可能한 것이다.

우선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의 主要產業機關은 美國을 비롯해서 獨 英 佛 日本등 先進外國의 어느 產業機關과 技術提携를 맺고 技術者를 導入하여 그들의 技術에 依存하고 있는 現狀은 이미 오래 전에 先進外國에서 發表되고 그것이 實用되고 있는 學術的 結果를 우리나라의 產業界에서 把握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立證하는 것이다.

또한 誠意있는 研究者들이 어느 特殊한 研究에 꾸준한 努力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先進外國에서 發表된 文獻을 잘 調査하면 速히 把握할 수 있는 既知의 事實을 알지 못하고 重複된 研究에 時間과 努力과 經費를 헛되이 버리는 結果가 許多할 것이다. 이것은 研究者의 努力과 研究費와 時間의 浪費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一連의 研究가운데 몇가지의 過程을 이와 같이 時日을 浪費함으로써 그 研究의 完成이 언제나 外國에 뒤지고, 研究의 獨創性 特許의 優先權을 항상 外國에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研究의 獨創性의 競爭은 從來부터 世界를 相對로한 것이었으나 產業界의 競爭도 開放經濟下에서는 世界的인 것이다.

이러한 既知의 事實을 알지 못하고 追跡하여 研究하는 것이 美國에서도 約 10%나 있다⁸⁾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보다 몇배나 많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極少한 韓國의 研究費는 情報文獻活動이 不備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浪費되고 있는 것이다. 이 追跡研究에 浪費되는 費用과 人員을 半數만이라도 情報文獻活動에 使用한다면 이렇게 헛된 研究는 해마다 減少되는 同時에 整理된 技術情報의 蓄積이 해마다 增加되고 情報文獻活動의 效果가 해마다 上昇해 갈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情報科學時代에 보다 容易하게 適應될 수 있을 것이다.

此際에 이와 關聯해서 政府施策面을 몇가지 생각해 보자. 數年前 海外에 있는 우리나라의 科學者들이 歸國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論難이 있었던 事實을 잘 알고 있다. 當時 政府의 召還令에 의하여 몇몇 學者들이 歸國했으나 그들은 또다시 海外로 나갔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여러가지 理由가 있겠으나 가장 主要한 原因은 國內에서 그들이 充分한 研究生活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條件이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 그들의 報酬問題도 論外는 될 수 없으나 우선은 研究施設이 不充分하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海外의 最新의 學術의 文獻을 適期에 充分히 活用할 수 있는 條件이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아마도 政府는 이러한 면에서 충격을 받고 科學技術 研究所(Kist)와 科學技術情報센터(Korstic)의 必要性을 切感한 나머지 그동안 이의 設置를 서둘러서 지난 10月23日 同時에 新築開館을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韓國科學技術研究所는 Computer를 비롯한 最新의 研究施設을 갖추고 國內外의 科學技術分野의 文獻을 網羅的으로 迅速히 入手하여 繼續的으로 整備하고 特定한 科學技術研究計劃을 推進하는 同時에 各產業機關 및 政府機關에서 依賴되는 課題를 研究發展시켜 나 아갈 것이며,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Korstic)는 Computer를 비롯한 最新의 情報媒介施設을 갖추는 同時에 國內外의 科學技術分野의 文獻을 網羅的으로 迅速히 蒐集하여 繼續的으로 整備하고 이를 必要로 하는 各機關과 個人에게 迅速하고 正確하게 普及함으로써 우리나라의 科學技術振興에 이바지 할 것이다. 이 두 機關은 先進外國의 그것에 비하면 出發은 늦었으나 우리나라의 科學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不可缺少한 存在로써 登場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政府의 이에 대한 業績을 치하하는 바이며, 앞으로 이들의 效果的인 運營과 積極的인 育成을 크게 기대하는 바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全般的인 文化的인 效果的인 發展을 위해서는 社會科學이나 人文科學分野를 包含하는 綜合的인 情報센터도 必要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設置보다도 國立中央圖書館이나 國會圖書館등의 既存의 機關이 그러한 機能을 發揮할 수 있도록 施設과 組織을 再整備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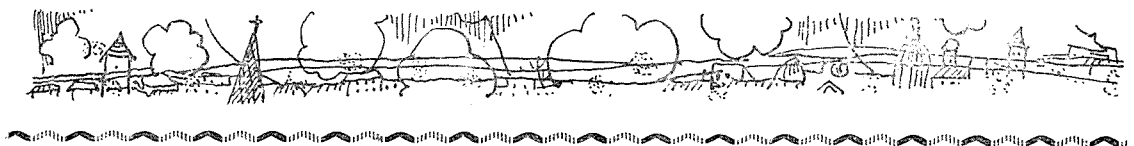
한편 政府는 數年前에 「공부하는 大學生, 研究하는 教授의 風土造成에 대한 計劃」을 發表하고, 이에 대한 많은 關心과 努力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된다. 또한 學者나 研究者들에게도 前例없이 研究助成費를 支給하고

研究結果를 文敎部에 報告하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報告書는 왜 現在까지 發表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研究結果가 널리 發表되어 그것이 다시 活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全然 無意味한 것이며 無價値한것임은 말할 必要도 없다. 그것은 어떠한 內容, 어떠한 形態이든 迅速히 發表되어 그 研究結果를 基礎로하여 또다시 새로운 研究가 繼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筆者의 私見으로는 政府의 學風助成을 위한 施策은 研究助成費를 支給하는 그것보다도 우선 모든 研究施設을 充實히 하는 同時에 研究를 위한 海外의 學術的인 文獻資料를 組織的으로 항상 迅速히 國內 學界에 補給될 수 있도록 行政的으로 積極的인 措置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研究助成費는 어떠한 獨創的인 貢獻性이 있는 研究結果에 대한 報償費로 轉換하여 支給하는 것이 더욱 效果的인 일 것이다.

요컨대, 政府는 學風助成에 앞서 學術의 效果的인 發展을 위한 實際的인 條件造成에 盡力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1) *Chemical Abstracts*. Easton, pa., American Chemical Society Chemical Abstracts Service 1907~
- 2) *Biological Abstracts*, Philadelphia, 1926~
- 3) Bourne, Charles P. *American Document*. 13(12) 159~168 (1962)
- 4) Stone, C. Walter. *The Library Function Redefined. Library Trends*. Illinois, Univ. of Illinois, 1967 vol.16. No.2 p. 186.187
- 5) 崔昌均, 國內索引誌에 관하여, *圖書館學報* 第一輯 中央大學校圖書館學會 1968. p. 28~33
- 6) 千惠鳳, 書誌事業의 重要性에 대하여, *韓國圖書館協會編, 도협월보* 1969. 10(vol. 10, No. 8.) p.7~10
- 7) 平山健三著, *知識의整理*, 東京, 南江堂, 1965 p.31.
- 8) *ibid.* p. 32



(27面에서 繼續)

成功을 이룩한다' (行者常至·爲者常成)고 했다. 우리들은 韓國人의 長點을 단적으로 '實踐하는데 있다' (實幹)고 認定한다. 옳다고 認定되는것은 實行한다고 했으면, 實行하는 것이었지, 돌려 내거나 미루지 않으며, 잘 못이라고 認定되는것은, 即刻 고치었지 絕對로 外飾을 誇張하거나 彌縫하지 아니 했다. 그들의 法令은 隨時로 改正할 수 있으며 人事上의 新陳代謝는 더욱 姑息되지 아니 했다. 假令 우리들이 오늘날 韓國을 거울 삼는데 있어 다만 外表的인 類似性만 追求할 뿐, 그 精神의 所在은 仔細히 살피지 않으면서 나아가서 그 一致點을 追求한다는 것은 바로 '寶石箱子를 사면서 그 속에 든 寶石을 돌려 주는 格'(買櫝還珠)이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는가